



1) 동문회 현황

성심교정동문회는 1968년 창립 이래 성심여자대학교 28회, 가톨릭대학교 17회(1996년 2월 졸업생부터 졸업횟수가 틀려진다) 성심교정에만 총 29,000여명의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내에 본부를 두고 춘천, 대전, 부산, 제주, 인천, 분당, 평촌, 일산, 송파, 서초, 강남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미국 LA와 뉴욕, 호주에 해외 지회를 두고 있다.

본회는 각종 행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사랑과 우애를 다지고 있으며 세계성심동창회(AMASC)와의 교류를 통하여 성심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2) 동문회 연혁

1968~1971(1~4대)

동문회가 처음 창립한 이후 체제정비와 활동내용을 마련한 시기로 회칙제정과 사업계획의 마련 등을 통해 동문회 발전의 단초를 다지는 시기였다.

1972~1977(5~7대)

동문회의 질적, 양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5회 졸업동문부터 동창회 입회식을 실시하였으며(그 전통은 1996년 2월까지 이어지게 된다) 각과 동문회를 조직하여 상호 유기적 결합을 꾀하게 되었다.

또한, 모교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장학 기금 1천만원 모금을 전개하였으며 지속적인 모금을 위해 교내에 '고운집' 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는 모교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전개된 시기로, 1974년 부천으로의 이전 계획 이후 부천교사 성모상 건립을 위한 모금과 국내외 대학원 지망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 모교에 장미나무헌수운동을 전개하였다.

1978~1981(8~9대)

이 시기에는 모교 부천교사로의 이전 계획에 맞춰 활동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동문회는 춘천, 부산지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변경, 본회와 통합 운영되어 왔던 것을 분리하였다.

모교지원사업으로는 부천교사 내에 도서관 증축기금 운동을 전개, 도서관에 카펫을 기증하고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춘천교사의 매점은 기숙사로 인계하였다.

또한 후배동문에 대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서클활동에 대한 보조가 이 시기부터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모교가 벌이는 지역사회 후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조직 성장을 꾀하는 시기였다.

1982~1987(10~12대)

부친교사로 이전한 이후 모교의 교세 확장과 함께 동문회도 급격한 팽창을 이루는 시기였다. 해외(L.A. 뉴욕)의 지회 운영이 시작되었고, 급격히 늘어난 동문의 수로 인하여 동문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동문자녀 음악회 개최, 동문 주소록 정비, 주소록 발간 등의 내부사업을 전개하였다.

모교지원으로는 예수성심성당에 오르간 기증, 소강당, 대강당 의자 기증 등 각종 시설의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김재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재단법인 '성심장학회'에 기부하였다.

1988~1989(13대)

1988년도에 있었던 가톨릭대학교와의 통합 안 철회 요구로 인해 동문회의 활동이 내용적으로 성숙되었던 시기로 모교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성심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 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하여 모교에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된 시기이다.

또한 재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교내 자동판매기를 인수, 운영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세계성심동창회(AMASC) 임원진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성심의 이념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동문회 활동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1990~1992(14~15대)

동문회원의 확대에 따른 동문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대표, 과대표를 선출,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문의 수가 1만 명이 넘어가는 1991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2의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재학생과 함께한 '성심 모꼬지'를 동문회 자체의 행사인 동문회 총회 및 동문잔치로 바꾸게 되었다.

2대 학장이셨던 주매분 수녀의 중국의 수혜에 따른 도움 요청으로 동문들이 모금, 후원하였고 학교부설 사회복지관에 피아노를 기증하였다.

1993년~1994(15~16대)

가톨릭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학교의 결정을 전달 받은 이후 통합 관련 논의가 주된 활동이 되어 동문들의 의견이 학교에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시기였다. 성심의 전통과 역사가 계승되길 요구하였으며, 동문회는 변함없는 모교에 대한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통합된 학교의 발전상을 동문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미국전역을 포함하여 중앙도서관 건립기금으로 모인 기금을 30주년 행사 때 학교에 전달하여 모교 지원사업의 끈을 이어갔다.

1995~현재(16~26대)

가톨릭대학교와의 통합 이후 눈부신 발전을 맞고 있는 모교의 모습을 통해 동문회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우선 동문회의 명칭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동문회'로 개정하고 동문회보의 명칭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동문회보'로 개칭하였다. 또한 2004년 성심교정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앞 만남의 광장에 시계탑을 세우고 '성심국제문화 연수원 건립' 추진을 시작하면서 성심교정동문회에서 성심국제문화연수원 건립을 위해 기증한 발전기금은 현재까지 모두 1억190만원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정간의 유대도모와 모교발전에도 더욱 집중하고 있다.

3) 활동현황

동문회 운영은 동문들이 내는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 평생이사회비 외에 동문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동문회비는 입회비 형식으로 재학 중 한번만 내며 동문회입회비를 낸 사람에게는 졸업하는 해부터 회보를 발송하고 있다. 동문회의 활동을 크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문회보를 발행하여 모교와 동문의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동문간의 내적 결속을 꾀하고, 지속적인 주소록 정리 사업으로 동문의 주소를 확보함으로써 동문회의 조직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의원 총회, 정기이사회, 동문잔치(홈커밍데이), 성심교정송년의 밤, 동문회 수첩 발간, 바자회 수익사업 등 각종 행사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모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첫째, 장학사업으로 매 학기마다 일반장학금(성적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던 동문회 장학금은 2002년 6월 가톨릭대학교 성심동문장학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한학기당 8~9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각 학생당 150만원 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장학생을 증원하여 보다 많은 장학금을 후학들에게 수여하고자 애쓰고 있다.
둘째, 학생회 및 동아리 등의 학생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졸업생들의 특별모금을 통해 모교 발전(예를 들어 도서관 건립기금 전달, 성심국제문화연수원 건립후원 등)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성심동창회(AMASC)의 총회에 참석 하는 등 활발한 교류 및 활동을 통하여 전 동문 및 그 가족들이 각 국을 방문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각종 수익사업을 통하여 동문회의 운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동문과 모교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4) 조직과 구성

본 동문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사업부, 국제부, 홍보·간행부, 재무부, 총무부, 기획부 그리고 각 지회장, 각과 동문회장(대표)등 상임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 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대표와 과동문회 대표를 중심으로 선출된 대의원들과 이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동문회와 동문들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요 의결기관으로 매년 1회 정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있다.



1 의과대학

1) 연혁

가톨릭의대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1960년 2월 25일 창립 총회를 열어, 모교의 발전과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창회는 강제진 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1967년까지 2, 3대에 연임하면서 한국 의학계에 신기원을 이룩하며,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모교와 산하 부속병원의 발전에 발맞추어 힘을 키워 왔으며, 1967년 제4대 회장에 1회 졸업생인 길병도 동문을 선출하여 1973년까지 5, 6대를 연임하면서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및 보조사업을 넓히고 명실상부한 동창회로서의 기능을 정립하다.

1973년 제7대 회장에 1회 차형곤 동문이 선출하여 8대에 연임하면서 모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900여명이 넘는 의사가족을 이룸으로써 이 나라 보건사업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여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자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문 및 가족을 위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일반 기금모금 100만원을 목표로하여 특별 찬조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목표를 넘어설 수 있었고 장학기금 역시 100만 원을 넘어서는 목표달성을 하였다. 한편 1974년 5월, 군의학교 제4기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김정일(10회)동문이 영예의 수석을 차지해 국방장관상을 수상하여 모교의 명예를 크게 빛냈다.

1977년 1회 이한길 동문이 제9, 10대 회장을 연임하면서 동창회 기금모금 운동 및 귀국동문 기념학술 세미나 및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시합, 낚시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1년 제11대 회장에 2회 김광태 동문이 선출되어 동창회 기금모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창회 총 기금모금액은 27,900,000원을 모금하였다. 아울러 재임기간 숙원사업이었던 강남성모병원의 개원을 맞이 하게 되었다. 학사일정을 기재한 동창회 달력을 제작하여 전 동문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본 동창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조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동문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도모하고자 힘썼다. 또한 재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어느 장학회에서 지급되는 액수보다 최다 금액을 우리 동창회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동창회 창립후 처음으로 동창회 회칙을 보완 수정하는 1차 개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658명의 동문이 배출된 1983년도에는 강남시대에 즈음하여 학교와 부속병원이 한 캠퍼스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1983년 2월에는 제12대 회장에 3회 송석규 동문을 선출하여 개교 30주년을 맞아 교내에 히포크라테스 동상을 제작하여 동문을 비롯한 귀빈들을 초청한 가운데 성대한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또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1985년 2월 현재 동창회 기금 모금액은 71,000,000원을 넘어서고 있다.

1985년 제13대 회장에 4회 권혁채 동문을 선출하여 본교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의 동문들의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 동문연구비 지급 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어 원내 동문들의 학문 연구에 적은 보탬을 주고자 힘썼다. 또한 해외 동문들과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재미 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총 동창회와의 우의를 다지는 일에 주력하였다. 1986년도에는 성모병원 개원 50주년과 여의도성모병원 신축 이전 등 우리 가톨릭대학사에 길이 빛날 도약과 발전의 기념비적 해이기도 했다.

1987년 2월에는 제14대 회장에 5회 차상덕 동문을 선출하여 동창의 날 행사를 지속사업으로 확고히 정립시켰으며, 졸업 25주년 재회의 날을 만들어 매해마다 25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의 장을 만들어 동문들이 기꺼이 참여하여 자축겸 진심으로 재회의 날을 환영하고 기념하여 평가받고 건설하게 커가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일에 앞장섰다. 그간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않았던 청주, 충주, 제주, 전남지부, 서울북부, 성북, 동부, 도봉지부를 비롯해 여의사 지부를 새롭게 결성하여 총 동창회와의 가교역할을 위한 일에 전념하였다.

1989년 2월에는 제15대 회장에 6회 조덕연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임기 2년의 공약사업이었던 동창회 제 규정 정비 및 이행, 모교와 회원간의 가교역할과 아울러 그동안 등록금 반액만 지급해오던 장학금 제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 규정의 틀을 마련하였고 재미 동창회와의 협력하에 유학중인 동문 2명을 선정하여 재미 동창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 제도 마련과, 동창회의 심볼인 기(flag) 및 지회기 제작과 지속적인 동창회 사업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2월에는 제16대 회장에 7회 이보연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2년 동안의 임기를 통하여 재미 동창회원들과의 각별한 유대관계 유지에 주력하였으며, 동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에 조성훈(1회)동문이 보직임명을 받게되는 경사도 있었다. 또한 전북 전주지부를 비롯해 경기남부지부가 새롭게 창립되어 현재 동창회 지부는 서울에 10개, 지방에 16개, 특별지부(여의사지부) 및 학내, 재미 지부를 포함해 총 29개 지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만호(19회)동문의 찬조로 동창회 사무실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설치됨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3년 2월에는 제17대 회장에 8회 이창빈 동문을 선출하여 개원의와 원내 동문들간의 가교 역할과 함께, 서울시 구 의사회 대의원들을 우리대학 출신들로 유치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동문들이 서울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대학 교정에 위치한 히포크라테스 흉상을 재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흉상 재건립을 위한 기금모금 활동에 주력하였다. 원외 동문들이 본원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환자를 의뢰할 때 신속히 진료 및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1995년에는 제18대 회장에 9회 장중호 동문을 선출하여 성심교정과 성의교정 동창회를 통합하여, 초대 총동창회장을 장중호 동문이 맡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향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대학발전후원회 사업을 위한 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모금운동을 계획하였으며, 미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3개 교정 동문들과의 호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4년도에 연회비 2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10년 동안 변동없던 동창회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997년에는 제19대 회장에 10회 허춘웅 동문을 선출하여 대외적인 활동으로 시·도·구 의사회장에

동창회 동문들이 다수 당선되는 기쁨이 있었고, 미주 동창회 5개 지부와 잦은 연락을 통해 국내·외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동창회가 되는데 힘썼으며, 대학발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회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미주 KAMA(한인계 의사들의 총 통합단체) 출범 22년이 되는 1998년에도 본교 이상철(5회) 동문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기쁨도 있었다.

3개 교정 통합에 즈음하여 심볼은 가톨릭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 사랑, 봉사를 나타낸 것으로 진리의 표현은 펼쳐진 책으로, 사랑의 표현은 날개를 편 비둘기로, 봉사의 표현은 타오르는 등불로 시각화하여 새로운 로고로 사용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제20대 회장에 11회 이창규 동문을 선출하여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동창회 발전과 도약을 위해 3,608명의 가톨릭 동문들의 결집력을 강조하였다.

1987년 2차 개정이후 수정되지 않은 동창회칙을 보완하는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향후 보다 체계적인 동창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기수별로 내려왔던 동창회장 선출제도를 경선제도로 바뀌 덕망있고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은 동문중에 선출하자는 경선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창회 40년 역사 속에 조기(弔旗)제작에 뜻을 같이 하여 10개의 근조기를 제작하여 동문 분포도가 많은 지역에 배부하고, 총 동창회 사무실에 2개의 기를 보관하여 조사가 발생 될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2000년에는 CMC 출신으로서 최초로 서울시사회장에 한광수(6회) 동문이 선출되어 우리대학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경사가 있었다.

2001년에는 제21대, 제22대 회장에 2회 김광태 동문을 선출하여 3천8백여 명의 동문들을 대표하여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동창회 역사를 일궈나가게 되었다. 동창회 제11대(1981-1983) 회장을 역임할 당시 동창회는 총 1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3년 현재는 40개 지부로 확장되어 원내외는 물론 해외에서도 의학연구와 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동창회 42년의 역사속에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의 밤”의 날을 제정하여, 본교 출신의 총 본산인 동창회가 그 권위와 명예와 부상금을 걸고, 우리의 표상이자 수범이 되는 동문을 선출하여(학술분야와 봉사분야) 본 대학 역사를 길이 빛낼 수 있는 분으로 받들고 본받으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01년 11월에 첫 시작을 하여 제1회 자랑스러운 가톨릭 의대인으로 봉사상에는 선우 경식(10회) 동문이, 학술상에는 천명훈(18회) 동문과 주천기(22회) 동문이 각각 선정되었다.

2002년 5월에는 개교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가톨릭의대 동문들의 아무진 자신감과 의지의 결집으로, 전국 970여 개의 종합병원을 포용하는 대한병원협회 제31대 회장에 본교 출신인 김광태(2회) 동문이 당선되어, 대학과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에는 기존의 동창회 명부에서 한 단계 높혀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그리고 개인별 직책까지 보완, 기재하여 품격 높은 족보로 손색없는 명부를 발간하였다.

2004년 5월에는 가톨릭의과대학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4천여 동문들의 뜻을 담은 기념조형물을 1억여원 투자하여 교정에 건립하였다

2005년 1월,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한광수(6회)동문을 선출하여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일환으로 유증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운동은 동문이 사후에 약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이 금액은 전액 장

학재단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목표하에 7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의 유증을 약정받았다.

또한 한광수 동창회장은 동창회보를 정기적으로 2달에 1번 발행하기로 하는가 하면 그간 A4 규격이었던 회보를 신문 규격(타블로판)으로 증면시키는 것을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2006년 1월에는 가톨릭의과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국군 의무사령관에 김록권(21회.삼성장군) 동문이 취임하여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이는 오랜 군생활 경력으로 준비된 결과였으며 향후 십여년 내에 우리 동창회원이 다시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또한 2006년 1월에는 타고출신 명예교수님들께서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뜻을 기리기위해 동창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증서를 수여하였고, 본 대학 동문으로서 자랑스럽게 정년을 맞으시는 동문들에게는 행운의열쇠(5돈)를 증정하기로 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정기총회에서 제24대-제25대 회장에 백성길(8회)동문을 선출하여 4,550명의 동문을 대표하게 되었고 2009년도부터 동창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2010년 1월 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재단>을 인가받게 되어 앞으로 동창회 장학재단을 위한 기금모집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0년은 동창회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동창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흔적으로 남기기위한 사업에 일환으로 동창회 50년사 편찬을 위해 한광수 전임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맹광호 위원을 중심으로 50년사 발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1월, 정기총회에서 4,777명의 동문을 대표하여 제26대 회장에 정규형(18회)동문을 선출하였다. 동창회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하여 이사회에 투표를 거쳐 정규형 동문이 선출되었다. 정 회장은 전임회장이 일궈놓은 동창회 장학재단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더욱 주력하여 우리 후배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동문골프대회를 시작하여 총 152명의 동문이 대거 참여하여 숏건방식으로 골프대회를 성료시켰으며, CMC중앙의료원과 동창회와의 MOU 협약식(원외동문 무료주차와 동문 및 배우자 진료비 10% 감면, 도서관 이용등...)을 체결후 동문 아이디 카드(삼성 제휴카드) 발급을 제휴하여 한시적으로 원하는 동문들에게 카드 발급을 돕고 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임기 2년동안 동창회 발전에 획기적인 봉사를 하기로 하였다.

2) 조직과 구성

원외에 개업중인 동문들은 전국적으로 39개의 지부(서울 12개, 여의사 1개, 지방 25개, 재미 1개지부)로 결성되어 총 동창회와의 가교역할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졸업기수마다 회장 및 총무가 구성되어 동기 별로 잦은 만남을 통해 총 동창회와의 단합된 결집력에 힘쓰고 있다.

지금 현재 동창회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진은 정규형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28명의 부회장과 9명의 위원장, 16명의 상임이사와 3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중에 있다.

3) 동창회 주요 사업

- ① 동창의날 행사(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
- ② 동문골프대회(매년 10월 둘째주 일요일)
- ③ 동문등반대회(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
- ④ 자랑스러운 가톨릭의대인의 밤(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
- ⑤ 동문연구비지급
- ⑥ 재학생 장학금 지급
- ⑦ 재학생 활동(CAMEAD) 보조
- ⑧ 졸업생 동창회장 상(금메달 5돈) 수여
- ⑨ 본대학 정년퇴임하는 동문들께 행운의열쇠(금 5돈) 증정
- ⑩ 보직자 및 보직동문 승진 축하연 개최
- ⑪ 박사 학위 수취자에게 패 증정
- ⑫ 동창회보 발간(격월)
- ⑬ 동창회 명부 발간
- ⑭ 동창회 50년사 발간
- ⑮ 동창회 장학재단 운영
- ⑯ 신입회원 환영회
- ⑰ 동문 및 직계가족 경조사업
- ⑱ 동문 아이디어카드 발급(삼성 제휴카드)

2 간호대학

1) 연혁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는 1957년에 2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 9년 후인 1965년 11월 21일 한국회관에서 총 193명의 회원 중 85명이 모여 상호 친선도모 및 모교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초대회장인 1회 조봉숙 동문이 당시 간호과장이었던 방용자 수녀의 도움으로 동창회칙 마련 및 흰나리 장학사업을 펼쳐 재학생 19명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 동창회의 기틀을 닦았다. 초대 고문에는 전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 교감이었던 김영진 선생을, 2대부터는 방용자 수녀를, 1984년부터는 방용자, 한운복 교수 두 분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1967년 제2대 회장에 조봉숙 초대회장이 유임되었다.

1970년 제3대 회장에 8회 이선자 동문이, 1972년 제4대 회장에 9회 김경자 동문이 선출되어 졸업메달 제작 및 펀 수여, 해외동문에게 의맥과 달력을 송부하였으며 전체 야유회를 가지는 등 인화를 다졌고 많은 회원들의 호응 속에 100만원 목표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펼쳤다. 또 동창회장상도 마련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재학시 타의 모범이 된 학생 1명에게 수여하였다.

1974년 제5대 회장에 9회 이인자 동문이 선출되어 국내회원들에게 성의학보를 발송하는 등 모교 교직원과의 인화에 주력하였다.

1976년 제6대 회장에 3회 원영옥 동문이 취임한 후 미국 거주 동문들이 L.A., Chicago, Philadelphia, New York 등에 지부를 결성하여 68명이 680불을 보내오는 등 장학사업을 지원하였고 모교 교수들의 ICN 회의 참석을 지원하였다.

1978년 제7대 회장에 2회 신은교 동문이 취임하여 200만원 목표 장학기금 모금과 더불어 대어장학제도에 병행하여 무상장학제를 추가 신설, 무상으로 2명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하였고, 동창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회기대표회를 구성하였다.

1980년 제8대 회장에 9회 이인자 동문이 취임, 성모병원과 성바로 병원에서 동문 의료수혜의 길을 열어 30명이 진료혜택을 받았다. 한편 무상장학금액도 2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였다.

1982년 제9대 회장에 1회 박창희 동문이 취임하여 600만원 목표의 장학기금을 모금하였고, 모교의 신축교사 이전시 교실집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수혜범위를 직계가족까지 넓혔다. 또한 동창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성의회관 내에 동창회 사무실을 마련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4년 제10대 회장에 10회 지성애 동문이 취임하여 흰나리 장학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올렸고 개교 30주년을 맞아 '간호사와 인간이해'라는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가졌으며, 동문 재상봉행사를 주최, 1회부터 5회까지 국내 및 국외거주 동문들과 초대교문인 김영진 선생과 후배 167명이 모여 우의를 다졌다. 또 나이팅게일 동상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1986년 2월에 제막식을 가졌다. 또 장학기금 확장을 위해 뱃지가 새겨진 차수저를 제작, 판매하였고 동문의 박사학위 취득기념 논문 발표회를 지원하였다.

1986년 제11대 회장에 10회 한상임 동문이 선출되어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하였으며 국외 4개 지부 및 CMC 강남성모병원동문회, 양호교사동문회 등의 동창회 산하단체를 결성하였다.

1988년 제12대 회장에 11회 박혜자 동문이 선출되어 장학기금 확장을 위해 뱃지가 새겨진 도자기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동창간의 유대증진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기록부 작성과 평생회원제 확충에 힘썼다.

1990년 제13대 회장에 8회 홍승자 동문이 선출되어 동창간의 유대증진을 도모했으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 동창회의 제반업무를 진산화 하였다.

1992년 제14대 회장에 8회 홍승자 동문이 재임되었고, 동문들 사이의 유대와 재학생들에 대한 활동보조 및 격려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1993년 간호대학으로의 승격을 돕기 위하여 간호학과 장기발전위원회를 결성, 5억원을 목표로 기금모금을 시작하였다.

1994년 동창회 주요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15대 회장에 8회 홍승자 동문이 유임 되었다. CMC 성모병원동문회가 발족되어 동창회 산하단체가 하나 더 구성되었으며 개교 40주년을 맞아 축하행사를 적극 지원 하였고, 미국 San Jose에 거주하는 동문이 증가하여 지부를 결성, 해외지부를 1곳 늘려 사업을 펼쳤다. 또한 간호대학 승격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1994년 11월 교육부로 부터 간호대학 승격을 인가 받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95년 3월 간호대학이 출범하였다.

1996년 제16대 회장에 8회 백중혜 동문이 선출되었고, 해외지부 활동강화의 일환으로 대학본부 주최로 개최된 재미 가톨릭대학교 총동창회에 참석 및 행사보조와 시카고, 워싱턴지부를 방문하여 해외동문을 격려하였다. 또한 10월에는 동창회기금 및 장학기금 확장을 위한 알뜰바자회를 개최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하였고, 동창회보 창간호를 제작·발송하였으며 1997년 동창회보를 년2회 발간하여 회원간의 유대증진에 힘썼다. 또한 본 간호대학이 간호학과 평가시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축하식과 함께 학생 및 동문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1998년 제17대 회장에는 7회 최국미 동문이 선출되어 동창회 기금관련 및 동창회의 내실을 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전 동문의 평생회원등록을 목표로 동창회의 지료를 개설함으로써 평생회원의 등록률을 높였다. 한편 1998년 9월과 1999년 10월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여 동창회 기금조성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바자회가 동창회원들의 만남의 장으로써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동창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동창회 사무실에 상주하는 파트타임 유급간사를 처음으로 채용하였으며 유자차, 딸기잼의 판매 등을 통해 동창회 수익사업을 시도하였다.

2000년 제18대 회장에 7회 최국미 동문이 유임되면서 동창회보의 연1회 발간, 지역동문회 모임의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힘썼다. 2000년 기금마련 바자회가 의료분류사태로 취소되었으나 이듬해인 2001년 9월 제4회 동창회 바자회가 개최되어 동문들의 만남의 장에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이익금 1,800만원이 동창회 기금에 더하여졌다.

2002년 제19대 회장에 7회 최국미 동문이 유임 되었으며, 그 해 계획했던 바자회 사업이 의료분류사태로 취소되어 다음해인 2003년 9월 제5회 동창회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성의회관 건립기금 및 동창회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최된 제5회 바자회 이익금 중 1,000만원을 9월 29일 성의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성의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동문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다.

2004년 제20대 회장에 11회 남정자 동문이 선출되어 그 해 5월 간호대학 개교 50주년을 맞아 동창기금에서 행사찬조금으로 3,000만원을 모교에 기탁하였고, 2004년 5월 4일 「동문의 밤」행사를 47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는 한편 동창회 홈페이지(www.cmc dc.co.kr)를 개설하였다. 2005년 9월 8일 제6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2,000만원을 동창회기금에 더하였다.

2006년 제21대 회장에 11회 남정자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모교 및 CMC 재직 동문들을 중심으로 여러 동문들이 서울성모병원 건립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1월 26일 서울성모병원 건립 후원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2008년 제22대 회장에 12회 조규숙 동문이 선출되었고, 2008년 3월 17일 성의회관 3층으로 동창회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2008년 6월 17일, 18일 2일간 제7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4,200만원을 서울성모병원 건립후원금으로 기탁하였다. 또한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성의교정에 조성하는 「동문의 숲」후원금으로 300만원을 2009년 6월 1일 기탁하였다.

2010년 제23대 회장에 12회 조규숙 동문이 유임되었으며, 2011년 6월 2일, 3일 2일간 제8회 바자회를 개최하여 이익금 4,200만원을 여의도성모병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2) 조직과 구성

현 동창회는 총회·이사회·실행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부 및 산하단체로는 7개의 해외지부(미국에 5개 지부, 캐나다지부, 독일지부)와 7개의 산하단체가 있다. 임원진으로 회장 조규숙(12회), 수석부회장 김정단(13회), 부회장 주해순(16회)·이은화(22회)·신미옥(25회), 감사 임인희(18회)·김화실(20회) 동문과 실행이사에 총무 이선미(34회), 서기 김현경(35회)·문화수(36회), 재무 김현주(37회), 출판 김은경(39회), 홍보 홍은영(32회) 동문, 이사에 각 회기대표 54명의 동문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창회 고문으로 이동익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천명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 의무원장을 추대하였다. 전체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칙개정, 임원선거, 예산·결산,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실행이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실행이사회는 회장·부회장·실행이사로 구성되어 동창회의

실무적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한다.

3) 활동현황

동창회원수는 2,696명(사망회원 제외)이며, 동문들의 주된 활동영역은 병원이 가장 많아서 임상간호사가 38%이다. 대부분이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 재직하면서 환자의 간호와 더불어 현장에서 후학들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로 취업·이민·유학을 떠난 동문이 21%로서 국외에서 한국의 간호, 가톨릭의 간호를 빛내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계의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와 간호학문과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직 동문이 4% 정도이며, 2세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 지킴이로 수고하고 있는 보건교사와 직장인의 건강관리에 헌신하고 있는 산업장 건강관리자가 4% 정도이다. 가정 및 기타는 33%로 추정된다.

4) 주요사업

동창회의 주요사업은 회원관련 사업과 모교관련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로는 ① 회원들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② 회원간의 유대증진 사업이 있으며, 후자로는 ③ 장학사업 및 학생활동 후원사업과 ④ 모교 발전사업 등이 있다.